

감격의 '리그 첫 승'

전주시민축구단, K3리그 '호남더비' 서
후반전 김신·이경택 연속골로 2-1로 이겨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리그 10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지난 25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3리그 10라운드 목포시청축구단과의 '호남더비'에서 후반 김신과 이경택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 1 역전승을 거뒀다.

전주는 그 동안 리그에서 1무 8패로 승리가 없었지만, 이날 승리로 10경기 만에 귀환 첫 승을 얻었다.

전주는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부터 압박을 통해 목포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역습을 노렸다.

하지만 심판의 운영미숙으로 첫 골을 내줬다. 목포 진형 하프라인서 두 팀 간의 볼 경합과정에서 반칙이 나왔다. 주심은 처음 전주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전주 선수들은 공격을 펼치기 위해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어 목포가 빠르게 경기를 진행했고 오른쪽 측면에서 정동철이 올려준 공을 김영욱이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전주 선수들은 주심의 판정 변경으로 수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골을 내줬다.

심판의 판정 미숙으로 이후 양 팀 플레이가 거칠어지면서 반칙도 많이 나왔다.

전반을 0대1로 마친 전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골을 기록하기 위해서 최인창과 이근호를 빼고 김신과 이동준을 투입했다.

전주는 동점골을 위해 계속해서 목포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목포의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자 후반 30분 윤문수를 빼고 이상민을 투입하면서 마지막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체카드는 성공적이었다. 전주는 후반 38분 김신의 발에서 동점골이 나왔다.

김신이 상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김상민에게 패스를 받아 목포 수비들을 이겨내고 슈팅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을 골을 기록하기 위해 공수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전주가 극적으로 극장 골을 만들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종료직전 김신이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중앙으로 내준 공을 이경택이 그대로 밀어 넣어 상대 골망을 갈랐다.

전주는 이날 극적인 극장 골을 선보이면서 목포시청축구단과의 K3리그 호남 더비에서 웃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이 지난 2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3리그 10라운드 목포시청축구단과의 '호남더비'에서 2대 1로 리그 첫 승을 거뒀다. 사진은 김신이 동점골을 넣자 동료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

도체육회의 '얼굴' 을 찾아서

독자적 CI·캐릭터 제작... 디자인 용역 내달 7일까지 입찰 공고
분야별 전문가 제안서 평가위원 29일부터 사흘간 신청·접수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CI(기업이미지 통합)와 캐릭터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체육회를 상징할 수 있는 CI가 없어 (구)대한체육회의 CI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CI가 없어 기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전북도체육회 CI·캐릭터 개발 및 슬로건 디자인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나라장터와 전북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 공고일은 8월 7일까지며, 제안서(서류) 접수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접수는 전북체육회 경영관리과(063-250-8405)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전북 체육을 총괄

하는 기관인만큼 도 체육회의 핵심이념과 가치, 미래비전 등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CI를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제안서 평가위원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9일부터 사흘간이다.

모집분야는 체육, 시각·산업디자인, 홍보,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지원자는 등록신청서 등 도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방문(전북체육회 경영관리과) 또는 이메일(yjseok00@jbsports.or.kr)로 하면 된다.

전북체육회는 각 단체별에서 추천받은 대상과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 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최지만, MLB 입성 후 첫 '오른손 홈런'

탬파베이는 6-5 승리

미국 메이저리그(MLB)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오른쪽 타석에서 짜릿한 손맛을 봤다. MLB 입성 후 처음 오른손으로 친 홈런이다.

최지만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1번타자 겸 1루수로 나서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유일한 안타는 홈런이었다. 그것도 익숙한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뽑아냈다.

홈런은 1-4로 끌려가던 6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선두타자로 등장한 최지만은 토론토 좌투수 앤소니 케이의 투구를 맞아 오른쪽 타석에 섰다.

최지만은 케이의 90.3마일(145km)짜리 빠른 공을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다.

최지만은 앞선 3회에도 우타석에서 섰다. 빅 리그 입성 후 계속 왼손 타자지만 출전했던 최지만의 첫 도전이었다.

최지만은 올해 스프링캠프와 그동안 연습경기에서 종종 오른손으로 타격에 임했지만 본격적으로 스위치히터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기회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던 최지만은 두 번째 타석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스위치히터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지만은 2-4로 끌려가던 9회 2사 만루에서



는 밀어내기 볼넷을 골랐다. 왼쪽 타석에서 시작한 최지만은 3B-1S에서 상대가 좌투수로 교체하자 오른쪽 타석으로 자리를 옮겨 볼넷으로 타점을 올렸다.

9회 2점을 뽑은 탬파베이는 연장 접전 끝에 6-5로 이겼다. 무사 주자 2루에서 진행되는 10회초 승부처기에서 1점을 내준 탬파베이는 곧장 이어진 공격에서 케빈 키어미어의 2타점 3루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뉴시스

“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전북대학교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 ”

2015년 7월 전북대학교와 부안군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결집해 출범했다.

부안의 건강하고 유익한 소재가 고부가 가치 건강식품으로 제조 및 가공될 수 있도록 식품 가공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관광·체험을 연계한 농업 융·복합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다.

T.063-219-5434